

현장시선

**최 희 속**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요즘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일 것이다. 정부의 각종 청년 취업 관련 대책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10.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제활동 없이 쉬는 청년이 35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의 청년 실업난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들리지 않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은 44

극복하는 재미를 아는 대한민국 인재들

만 명에 육박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는 19만 명이 응시했는데, 이 가운데 2.5%만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97.5%는 대부분 또다시 공무원시험에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사정을 뛰어넘어 해외 일자리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있다. 실제 해외로 취업한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취업자 수는 2015년 2903명에서 2016년 4811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작년에는 57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전의 해외취업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1960~1970년대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가서 고국에 보내는 돈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은 단지 높은 임금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313명의 응답자 가운데 67.7%가 ‘해외취업 경험에 향후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외취업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외국어 구사 능력의 향상, 글로벌 업무 경험 등의 이유로 해외취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자가 해외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을 만나보았을 때, 일본의 IT기업, 싱가포르의 글로벌체인 호텔, دبي의 아랍에미리트 항공 등에서 근무하는 그들은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극복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처음 접하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문화가 다른 많은 동료들과 같이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가족과 떨어져

독립해서 사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이야기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들은 더 큰 세상에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해외취업센터와 해외진출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을 통하여 해외취업 상담, 케이 무브(k-move)스쿨,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무료강좌, 구인기업 정보 및 해외정착 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젊은이라는 시기의 꿈과 도전은 모두 미래의 자산이 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도전이라는 젊음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무한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서 그 문을 열기를 바란다.

사설

음식물쓰레기 해법 도출에 지혜 모아야

발등에 불로 떨어졌던 제주시 지역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의 연장 사용을 거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했던 주민들과 행정당국의 타협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봉개동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허용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되고 있습니다. 봉개동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봉개동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음식물쓰레기 반입 차단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행정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TF(테스크포스)를 가동해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모든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재호 주민대책위원장은

“행정시와 함께 TF를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협약사항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봉개동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오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옮겨야 합니다. 이미 봉개동 주민들은 1992년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3차례나 연장 운영에 합의해 왔는데도 또다시 연장을 요구하니 뽀얀만도 했습니다. 문제는 서귀포시 책달동에 조성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연장 사용을 막는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봉개동 주민들이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젠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사법부가 제주4·3사건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4·3수형 생존인’에게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불법구금과 폭행·고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수형인들에게 보상을 결정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4·3수형생존인 18명에게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4억7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들 수형생존인들은 지난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들입니다. 지난 2017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1월 17일 사실상의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

고인들이 어떤 자료에서도 예심 조사나 기소장 등본의 송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당시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3권의 하나인 사법부가 4·3사건 당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제주도민들의 피해 보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국회사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4·3사건 발생 후 70여년의 세월이 흘러 생존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치유하고 국회는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열린마당

8월 주민세,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강 진 우**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매년 8월은 지방제인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을 텐데, 주민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의가 간혹 있어 알려드리고자 한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읍·면 지역은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 동지역은 6600원이며, 사업장을 둔 개인은 20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납세 대상자가 되어 5만 5000원이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은 자본금(출자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소액이어서 이를 가볍게 여겨 납부에 소홀할 수 있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날씨가 더운 여름, 시간도 절약하고 간편하게 납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알려드린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 한 인터넷 납부가 있고, ARS(1899-0341) 간편납부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 출금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중앙회, 제주은행 계좌 중 택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를 비롯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고지서 1장당 500원이 공제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까지 공제된다. 올해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세금이 소중히 쓰여지고 있음을 생각해 잊지 말고 주민세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최종 결과 관심

제주서 세곳 옹호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2019 하반기 공모사업에 총 3건(서귀포시 중앙동·사거리·제주시 건입동)을 옹호한 가운데 최종 평가 결과에 관심.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앙평가단의 현장실사가 이뤄졌으며, 오는 29일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9월말 최종 사업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 도 관계자는 “쇠퇴지역의 도시 활력회복을 위해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오은지기자

문화공간 운영부서 워크숍

○…제주도 문화정책과가 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공 문화예술공간 운영부서 합동 워크숍’을 실시. 이날 워크숍은 미술관·박물관 6곳, 도서관·공연장 7곳에서 실무급 직원을 포함 20여명이 참여해

2부로 나눠 열렸는데 기관별 주요 사업과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내년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 도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정기 인사 뒤여서 얼굴 한번 보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반응이 좋으면 만남의 기회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점언. 진선희기자

“라떼파파 눈에 띄게 증가”

○…가족 여행을 직접 챙기는 ‘능동적인 아빠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 제주신라호텔은 22일 올해 자녀 동반 가족고객의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 예약 건수가 3년 전보다 2배 가량 치솟았다고 발표. 제주신라호텔 관계자는 “한 손에 커피,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끄는 아버지를 일컫는 ‘라떼파파’를 쉽게 볼 수 있다”며 “남녀 모두 자녀와 추억을 쌓는 동시에 자신의 휴식도 중시하는 트렌드가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마디. 이상민기자

부 고

김일종 아버지 **광산김공 근보** (향년 83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2일 07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23일(금)
▶ 발인일시: 2019년 8월 24일(토) 오전 6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 장 자: 양지공원→천왕사

아 들 김일종 며느리 강시은
맏증 김경자
성증 유희승
신증 김은숙

부 고

고인국(제주감귤농협 서귀포시 지점장) 아버지 **제주고공 운서** (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2일 06시 24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23일(금)
▶ 발인일시: 2019년 8월 24일(토) 오전 6시 10분
▶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3분향실
▶ 장 자: 양지공원→서귀포시 충혼묘지

아 들 고인석 며느리 이성심
인권 현정희
인국 강경자
인호 이채연
딸 고인순(敬) 사 위 김세준
※ 연락처 : 고인석 010-3699-8238
고인권 010-3290-2717
고인국 010-5639-8426
고인호 010-2689-5124

본조할 서귀포시지점에 근무하는 고인국 동인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였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제주감귤농협 직원상조회

부 고

부성요(작가) 어머니 **김해김씨 호열** (향년 94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1일 14시 2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24일(토)
▶ 발인일시: 2019년 8월 25일(일) 오전 6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 장 자: 성산읍 시흥리 선영

아 들 부성요 며느리 백은희
성훈 유현숙
성현
딸 부순옥
재옥
금옥 사 위 한동열
희옥
장 손 부영준

※ 연락처 : 부성훈 010-5384-6341
부성현 010-4354-3496

부 고

오상봉(오라동 사평마을회장) 어머니 **니주김씨 묘순** (향년 93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2일 12시 2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25일(일)
▶ 발인일시: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 장 자: 가족선영

아 들 오상봉 며느리 백기순
손 자 오군석 손 부 홍영숙
군현 리 마
손 녀 오희진 손 서 송영진
희정 유동훈

※ 연락처 : 오상봉 010-3697-4967
백기순 010-8660-4967

부 고

강석인(제주감귤농협 대정지점) 아버지 **진주강공 호남** (前 제주도 의회 부의장·향년 72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2일 09시 45분경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24일(토)
▶ 발인일시: 2019년 8월 25일(일) 오전 9시
▶ 발인장소: 모슬포 동성수산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인로46)
▶ 장 자: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 공동묘지

부 인 한지혜(만손)
아 들 강석인
딸 강준미(만종) 사 위 이광식
은경
윤경 최경성
보경(萬種) 김형철
※ 조문, 조화는 8월 23일부터 받습니다.
※ 연락처 : 강석인 010-6665-2635
이광식 010-2000-5733
김형철 010-2595-162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동래정씨 해정** (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으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3일

아 들 임철주 며느리 정경숙
철웅 고정숙
철민 문미란
딸 임순희 사 위 조동기
순덕 김익수

자본금 감소 공고

당 회사는 2019년 8월 19일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총액 금740,000,000원을 금500,000,000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보통주식 48,000주를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인의소각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148,000주를 10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금 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19년 8월 19일

주식회사 초연종합건설

제주시 월림길 38, 2층(노형동)
대표이사 강창균